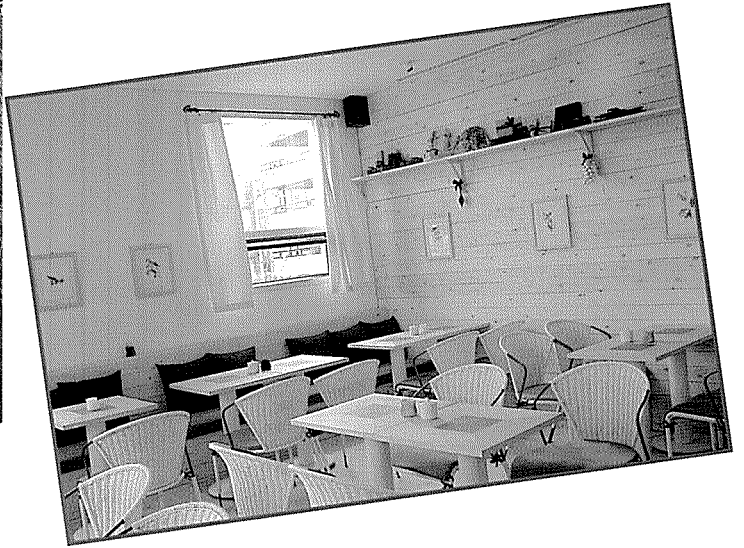




# 올리브베이커리 가맹 1호점

천호동에 위치 ... 완제품, 냉동생지 공급받아



↑ 2층 커피숍 내부. 커피숍과 베이커리를 복합하는 것은 올리브베이커리 매장 구성의 특징이다. 자연 원목을 그대로 사용해 깔끔한 느낌이다. 아직 초기 단계라 2층 커피숍에 대해 인식이 낮은 편이라는게 매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 1층 베이커리 내부. 올리브베이커리 천호점은 본사에서 완제품과 냉동생지를 공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동안 끊임없이 가맹 사업 진출설이 있어왔던 올리브베이커리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일 강동구 천호동에 첫 결실을 맺었다.

지하철 5호선 굽은 다리역 부근에 위치한 가맹 1호 올리브베이커리 천호점(대표 박옥주)은 1층 15평, 2층 15평 등 총 30평 규모로 1층은 베이커리, 2층은 커피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압구정동 올리브베이커리 본사에서 200여 가지의 완제품과 냉동생지를 공급받고 있으며 본사 기술자가 파견돼 상주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점포는 2층에 커피숍 공간을 두고, 매장 인테리어를 자연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전체적인 매장 컨셉을 압구정동 본점에 맞췄다. 고급 소비지역의 매장 컨셉을 중급 소비지역에 적용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매장 관계자는 "1층 베이커리의 경우 지역의 타 제과점 분위기와 확연히 구분돼 지역 소비자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지만 2층 커피숍은 테이블 회전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층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던져진 셈이다.

올리브베이커리는 천호점 외에도 향후 가맹점을 꾸준히 개설할 계획인데 총 가맹점수를 20개 내외로 한정해 내실을 탄탄히 다진다는 전략이다. 한편 현재 올리브베이커리는 압구정동 본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홍대점, 현대백화점, 천호점, 영등포 경방필백화점 등 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